

‘오감’ 입힌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五感

감각 동원 체험형 전시관 마련 만남의 거리 등 4개 주제별 운영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축제는 빛과 소리, 향기와 손짓 등 ‘오감(五感)’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추억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광주 동구는 올해 총장축제를 통해 추억 소환과 즐기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축제 개최 기간 동안 테마의 거리는 물론 개·폐막식 무대와 행사, 퍼레이드, 세부 행사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33개의 프로그램에 오감을 입히는 계획을 세팅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섰다.

올해 축제는 기존 콘텐츠 가운데 ‘육식’을 가려 한층 강화해 선보인다는 점에서 축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경쾌하면서 발랄한 오감 입히기가 이뤄져 감동의 깊이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핵심인 ‘테마의 거리’는 행사장 메인 공간인 금남로 1~3가에 꾸며지며 △ 만남의 거리 △열광의 거리 △정열의 거리 △낭만의 거리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테마의 거리는 물론 그 안에서 펼쳐질 프로그램 역시 ‘보고, 듣고, 향기를 맡고, 부딪히는’ 등 우리의 온 감각을 동원해 즐기는 콘셉트로 꾸려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축제



제21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오감(五感)’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함께 추억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0회 광주 추억의 총장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 **광주 동구청 제공**

를 이끌어갈 김태욱 감독은 “감각의 기억으로 각인된 추억을 오감으로 되살려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연출해내겠다”고 축제 준비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어제의 추억이 오늘의 나를 이끌어간 것처럼 마주하는 오늘의 추억이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믿음 아래 오감으로 즐기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감 체험형 전시관 운영

먼저 금남로 2가 추억의 테마거리는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청각·촉각·시

각·후각·미각 등 5개 카테고리별 ‘체험형 전시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인터랙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참여하는 재미를 한껏 드높일 예정이다.

‘촉각존(ZONE)’엔 추억의 감성을 불러일으킬 타자기, 주판, 오락실 게임기 등을 설치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후각존’은 어릴 적 보았던 엄마의 화장품, 비누, 옛날 음식 등 추억의 향기를 시향하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은 직접 시향

콘텐츠를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청각존’은 LP 레코드, 카세트테이프, CD, MP3 등을 준비해 관람객이 옛 음향 장치와 노래를 들으며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미각과 시각존’이 설치된다.

●다양한 음식부스로 ‘추억의 맛’ 선물
금남로 3가에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관람객이 쉬어가면서 추억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 부스가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추억의 맛’을 대표하는 메뉴인 분식(떡볶이·오뎅·상추 튀김 등)과 돈가스·주먹밥 등 식사류, 후식(오란싸·아이스크림 등), 음료를 판매한다. 부스는 동구 내 푸드트럭 협동조합 및 사회단체가 운영한다.

●바둑대회·추억의 보드게임 마련
손의 감각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는 테마의 거리는 10월 3~4일 금남로 3가에 조성된다. 메인 행사인 바둑대회와 추억의 보드게임을 비롯해 오목&알까기 대회도 열려 관람객들의 손의 감각을 일깨울 예정이다.

바둑대회는 청년·일반부로나눠 전국대회로 치러진다. 이세돌 9단도 참여해 이벤트 경기와 인터뷰를 통해 시민이 바둑스타와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진다. 추억의 보드게임은 젠가, 해적왕 룰렛, 탑블링 뽀빠, 펄링 얼음개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기 보드게임이 테이블 존에서 진행된다.

금남로 1가 ‘낭만의 거리’에서 진행될 ‘추억의 놀이터’에선 대형 젠가, 추억의

DDR, 물풍선 던지기 등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청년기획단 ‘짚이’가 기획하고 제작하는 놀이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전 세대가 즐기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객들의 시각과 청각을 일깨울 시간도 펼쳐진다. 추억의 감성 콘서트, 열정의 댄스 나이트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추억의 감성 콘서트’ (10월 3일)는 금남로 2가 주무대와 보조무대 등 3개의 무대에서 펼쳐지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든 관람객에게 잔잔한 선율로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다.

10월 4일 열리는 ‘열정 댄스 나이트’에는 나이를 불문한 전국 각지의 DJ들의 디제잉을 통해 추억의 댄스음악을 들려준다. 이밖에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6시 ‘총장 뉴스’를 통해 일자별 주요 이슈 방송을 송출하는 ‘총장 TV’, 시민이 직접 참여해 ‘빛’을 형상화한 상징물을 선보이는 퍼레이드, 혼수의 거리에서 세상에서 유일한 결혼식을 진행하는 ‘인생 최고의 대로’도 준비 중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올해 총장축제 개최까지 80여일 남은 가운데 각 분야별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다채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와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올해 총장축제는 대동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봉선동 사교육 민낯 충격… 교육당국 경각심 갖길”

본보 보도 후 ‘아침 과외’ 인지 “소아 정신과 현실화 막아야”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보(본보 2024년 7월1~9일자 ‘호남 사교육 1번지’ 봉선동 집중해부)와 관련 해결책을 요구하는 지역 교사들의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조재호 교사는 봉선동 사교육 민낯을 보도한 본보 기획 시리즈에 대해 ‘비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오전 7시 시작하는 ‘아침 과외’나 교육 인프라에 따라 ‘봉남·봉북’이 나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조 교사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 7시 과

외를 하는 새로운 현상은 알지 못했다”며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눈을 비비고 아침 일찍 과외수업을 받은 후 교실로 와서 수업하고, 또 밤 10시까지 학원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이 슬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의사’, ‘변호사’ 학부모들의 고단한 삶도 충격적이었다”며 “이들은 맘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를

위해 ‘봉북’이 아닌 ‘봉남’ 아파트를 선택하고,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자녀를 픽업했다. 또 그들을 부러워해 수완지구나 운암동 등에서 위장전입까지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봉선동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기형적인 사교육 문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당국이 불법 사교육 단속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사는 “기사에 의하면 봉선동 학

원에는 명문학교로 알려진 ‘삼육중 대비반’이 있다. 삼육중은 수업료 등이 일반 사립대학교를 웃도는 수준임에도 그곳에 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대비반에 속한 초등학교생들은 저녁 10시에 귀가한다”며 “한 사설(본보 2024년 7월2일자)에서 따끔하게 꼬집었던 교육당국은 ‘가까운 미래에 봉선동 일대 소아 정신과에는 교육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로 인해 매일 오픈런하는 모습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과외 단속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

전국 총판/대리점 및 영업사원 모집

파크골프 100만 시대, 국내 최고 파크골프채 생산 브랜드 **뉴월드파크골프**와 함께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1. 총판/대리점 : 파크골프 관련업체 종사자 우대 (각 지역 전체)
2. 영업사원 : 파크골프채 판매에 관심있는 분 (차량 소지자 우대)
3. 판매 품명 : 파크골프채, 파크골프용품
4. 대표전화 : 1551-7150, 010-3509-4191
5. 본사주소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치산길 26 (보경잔디농장내)
생산공장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길 22

NEW WORLD PARK GOLF 뉴월드파크골프